

종교사회학과 ‘사회종교학’ -기독교사회학의 사회변혁적 관점-

이 철 (송실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사회종교학
- III. 사회종교학의 정신분석학
- IV.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사회 해체
- V. 결론: 사회종교학과 하나님종교학

• ABSTRACT •

Sociology of Religion is a scientific study to analyze a religion with sociological methodology. In this definition, religion refers to not only the institutionalized religions but quasi-religious phenomenon such as hobby, ideology, social movement and so forth. To Emile Durkheim, society is a 'divine' object to its individuals as God is so to its believers. Like the subjects to God, people subordinate themselves to society, try to follow the socially recognized ideals and values and become dependent to society. This act of worshipping the society like God can be called 'religion of socie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role of this relig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akes use of Psychoanalysis and Post-structuralism not to mention of Durkheim's theory. Psychoanalysis suggests a way of finding the psychological motives or demands to make people to subordinate themselves to society. Post-structuralism shows how society forms and controls the act and thought of individual and at the same time how to deconstruct this society. The ultimate goal of this article as one of Christian Sociology is something to do with the concern about Christians' moving from worshipping to society to worshipping to God. For this concern,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and deconstructing the religion of society

Key words: society, God, religion of society, psychoanalysis, social change, post-structuralism

I. 들어가는 말

보스턴 출신의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성직자이기도 한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성공이란 자신이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라 하였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이것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으며 기독교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현 세상을 변화시킴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독교, 교인, 혹은 기독교사회학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사회변혁이라는 지향성 속에서 세상과 교회와 기독교사회학을 연결시키며 문제의 해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 미리 밝힐 것은 이 연구가 사회의 변혁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는 왜 쉽게 변혁되지 않는지, 왜 사람들은 변혁을 꿈꾸지만 변혁을 이루지 못하는지, 이런 상태에서 변혁의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를 답한다. 특히 마지막 질문을 후기구조주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물론 후기구조주의자들을 사회변혁의 지향성을 가진 이론가들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이들은 사회변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들은 그 원래의 관심과 달리 사회변혁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곧 사회나 개인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 익숙한 것,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면서 개입하여 그것들을 해체시키기 때문이다. 현실의 정당성이 해체될 때 변혁 가능성은 야기될 수 있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본다. 여기서 부각될 것은 개인의 사회 예측성이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신도와 신의 관계와 같다. 이런 의미에

근거하여 ‘사회종교학’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해본다. 곧 사회를 신처럼 섬기며 의존하는 현상을 언급하는 단어이다. 다음으로 개인들은 왜 사회에 자신을 위탁하는지 분석한다. 이는 개인의 심리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므로, 이를 위해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사용한다. 이 분석이 시도되면 개인의 사회 종속성의 내적 동기가 객관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먼저 ‘해체’의 한쪽 편, 곧 개인 측 해체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영속을 꾀하는 사회 측 ‘해체’가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이론들에 의해 수행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들이 활용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독교적인 입장에 근거해 ‘사회종교학’이 아닌 ‘하나님종교학’이 제시된다. 교회와 교인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속한 이론가이자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일반 종교사회학과 다른 기독교사회학의 독특한 기여 영역이자 관심 분야이다. 여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II. 사회종교학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케임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한 후 “사회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신과 그 신도들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술하였다.¹⁾ 그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자신이 속한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호주의 토템 부족들을 연구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뒤르케임은 사회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관심하였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족들의 토템 의례를 조사하였고, 거기서 집합행위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부족원들이 모여 집합흥분, 집합표현, 집합의식을 표출, 공유하는 의례(ritual)를 수행하는 동안 토템이 성스러운 숭배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이 성스러운

1) 에밀 뒤르케임, 노치준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서울: 민영사, 1992), 297.

대상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통합된다. 그런데 여기서 뒤르켐은 사회학자로서의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는데, 곧 토템은 단지 상징일 뿐이며 그것은 실은 다른 어떤 것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은 바로 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례를 통해 실제로 성스럽게 숭배 받은 것은 사회나 공동체이다.²⁾ 사람들은 토템을 통해 사회를 숭배하면서 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이때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신념, 이상, 도덕, 권위, 질서, 목표 등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여진 사회의 가치나 질서 등은 개인의 가치나 질서 보다 우위의 것—성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기에 사람들은 이 공동체적 가치나 질서를 추구하거나 따르게 된다. 뒤르켐은 이에 대해 “사회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잊어버리고 사회의 신복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³⁾

결국 뒤르켐은 호주의 부족원들이 토템 의례를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개인적 가치나 이익으로 인해 분열될 수 있던 조직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 등을 중심으로 통합,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를 통해 뒤르켐은 호주 토템 부족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공동체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및 유지 원인을 설명하였다.

뒤르켐의 이러한 연구를 미국 사회에 적용하여 분석한 학자가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이다. 비록 벨라가 자신의 연구에서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를 신과 신도의 종교적 관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호주 토템 종교의

2) 예를 들어 국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국기에 예를 표하고 국기를 소중하게 다루지만 국기는 천과 페인트로 만들어진 상징일 뿐이다. 국기 의례를 통해 숭배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민족 등이다. 2008년 발생한 승례문 전소 사건 시 많은 사람들이 승례문에 대해 예를 갖추었지만 승례문은 토템이었을 뿐 실제로 숭배 받은 것은 민족, 열, 역사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승례문 전소 사건의 사회통합적 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신학사상』 144집, 2009를 참조하라.

3) 뒤르케임, 앞의 글, 296-97.

의례에서 발생한 동일한 현상이 미국 사회에서도 시민종교라는 현상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 사회가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독립전쟁, 남북전쟁, 쿠바 핵미사일 사건- 지도자들이 출현하여 국가적 의례-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미사일 위기에 대한 케네디의 대국민 연설-를 통해 기독교의 용어들-하나님, 선민, 모세, 자유, 해방, 약속의 땅, 새 이스라엘 등-을 사용하면서 집합행위를 함으로써 미국 사회를 통합시켜 위기의 시간들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물론 언급한 용어들은 단지 상징들이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미국과 미국의 가치, 신념, 목표, 존재이유 등이다. 이 의례들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가치들은 다시 한 번 구성원들에게 성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며, 사람들은 미국과 이 가치들을 추구하고 따르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통합된다. 사회학자 에드워드 쉘즈(Edward Shils)는 이러한 중요 가치, 신념, 이상, 질서 등을 성스러운 중심이라고 불렀고 모든 사회에는 이러한 성스러운 중심이 있다고 하였다.⁴⁾ 이러한 시민종교는 미국의 중심 가치를 위협하였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911테러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⁵⁾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뒤르켐에게 사회는 개인들에게 외재하는 하나의 대상(society as object)이다.⁶⁾ 또한 사회는 개인에게 외재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삶과 생각을 모양 짓는 힘을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지만 사회는 구성원의 합 이상이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뒤르켐의 이러한 사회인식은 베버

4) 필립 스미스,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문화이론』(서울: 이학사, 2008), 153; 최종렬 엮음, 『뒤르켐주의 문화사회학』(서울: 이학사, 2007), 25. 사회도 성스러울 수 있다. 이때 성스러움은 본질적, 내재적이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성스러움이다.

5) 이에 대해서는 제프리 알렉산더,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과주: 한울, 2007) 6장을 참조하라.

6) David Frisby and Derek Sayer, *Society* (New York: Tavistock & Ellis Horwood, 1986), 34.

(Max Weber)나 짐멜(George Simmel)의 사회인식과 대조함에 의해 더욱 그 개념과 특징이 뚜렷해진다. 이들에게 사회는 개인의 합일뿐이다. 사회를 알려면 개인을 보면 된다. 사회는 단지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society as absent concept).⁷⁾ 철학용어를 차용하자면, 뒤르켐은 ‘사회실재론’, 베버나 짐멜은 ‘사회유명론’이라 할 수 있다. 구조주의는 전자에 입장에 근거하여 사회구조를 언급하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후자에 입장에 서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한다. 물론 ‘둘 다 다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입장도 있다 하겠다. 바로 피터 버거(Peter A. Berger)의 사회론이다. 그는 세 단계를 통해 사회를 설명하는데 곧, 개인들의 외재화, 외재화된 것의 객체화, 객체화된 것의 내재화로 인간과 사회의 순환관계를 설명한다.⁸⁾

본 논문은 사회를 뒤르켐, 사회실재론, 구조주의, 외재화된 것의 객체화에 근거하여 인식한다. 사회는 외재적, 독자적, 구속적인 성스러운 대상이다. 사회는 개인들에게 신적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들은 사회와 그 사회의 중심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따른다. 이러한 수용과 예측의 정도는 사회가 단지 객체화의 단계에 머물 때보다는 그 객체화된 사회가 개인들 안으로 내재화될 때 더욱 강화된다. 곧, 사회가 개인 밖에 있을 때보다 개인 안으로 내재하게 될 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버거뿐만 아니라 뒤르켐도 이미 직시하고 있던 사실이다.

III. 사회종교학의 정신분석학

성스러운 대상인 사회에 개인들이 순응할 때, 개인들은 그 사회의 가

7) 위의 글, 54.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Peter L. Berg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Anchor Press, 1967)의 II와 III부를 참조하라.

치, 질서, 권위, 규범, 목표 등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상충할 수 있다. 공동체적 가치나 목표와 종종 대립되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들을 그 예로 생각해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따르려면 개인적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뒤르켐도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잊어버리고 사회의 신복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왜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에 기꺼이 예속하는 것일까? 달리 표현하면, 왜 개인들은 자신의 관심이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는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는 사회에 자기 자신을 종속시킬까? 사회 자체가 성스럽고 강력한 대상이라 그러하다는 것은 단지 그것의 한 측면, 곧 사회학적 측면일 수 있다.⁹⁾ 이것 외에, 자신을 사회에 예속시키는 개인의 내적 측면, 곧 심리적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심리적 동기 혹은 욕구가 이 종속 사건 뒤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신분석학을 이루고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 그리고 라캉(Jaques Lacan)의 이론으로 접근 가능하다. 정신분석학에서 유아의 욕구와 대상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출생한 유아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이런 상태에서 유아는 프로이트가 후기에 언급한 삶의 욕구, 혹은 클라인의 멸절(annihilation)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대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은 일반적으로 어머니-클라인에게는 어머니 젖가슴-이다.¹⁰⁾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유아는 욕구를 충족 혹은 결핍 당하면서 평안 혹은 불안을 체득한다. 유아는 본

9) 이 대답 외에도 유물론적 답변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목적으로 위해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10) 물론 반듯이 어머니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 이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첫 대상자이다.

능적으로 결핍보다는 충족을, 불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상이 자신의 욕구에 제때에 필요한 만큼 충족시켜주길 원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유이는 그 대상을 신뢰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유이는 고통을 받고 분노하면서 대상에 대해 공격을 가한다.¹¹⁾

클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이 유아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한 불안과 우울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의 공격으로 대상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의 역동 속에서 유이는 대상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계속 돌보고 충족시켜준다면 유이는 자신의 회복 시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우울, 불안,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환경에 유아가 지속적으로 놓일 경우 그 유이는 클라인이 말한 ‘우울적 자리’에 고착되거나 혹은 퇴행하여 그 전 단계인 ‘편집-분열적 자리’에 접어들게 된다.¹²⁾ 물론 여기서 유아가 행하는 공격, 파괴, 회복은 모두 그의 환상(illusion)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나 이 환상은 그에게 실재, 곧 정신적 실재(psychic reality)이며, 이것의 지위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갖는 것과 동일하다.

인간 유이는 동물 유아들과 달리 오랫동안 첫 대상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과의 관계는 유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 유아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도 대상의 존재를 통해서이다. 공격과 대상 파괴로 인해 그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대상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이는 장기간 대상에 의존해야 하며, 이 의존관계에서 신뢰와 평안, 혹은 고통과 불안을 체득하면서 대상과의 관계

11) 하난 시걸, 이재훈 역, 『멜라니 클라인』(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43.

12) 스테판 밋첼, 마가렛 블랙, 이재훈, 이해리 역, 『현대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이후』(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72-175.

를 쌓아간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그의 무의식 안에 남아 있다가 이후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통의 기억이나 고통을 불러일으킨 욕구는 무의식에 억압된 채로 남겨져 있지만 이는 언제든지 의식을 뚫고 현실 세계로 표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클라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대상관계이론의 주요 핵심은 유아기 때 경험한 대상관의 관계 맺는 방식이 이후 유아가 성인인 되어도 타인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아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신뢰와 사랑을 경험한 경우, 그는 이후 타인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불신과 원망의 경험은 불신과 원망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대상(object)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지되듯이, 유아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머니(good enough mother)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아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 고통, 우울, 분노, 두려움, 죄책감을 겪으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러한 고통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도 대상과의 관계에서이며,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대상과의 관계에서 획득된다. 회복, 안정, 평안, 사랑, 신뢰, 믿음 모두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되고 얻어지는 것들이다. 유아에게 대상은 그래서 애증의 관계이다.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이지만 또한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겨운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는 고통의 원인인 욕구나 욕구의 결과인 고통의 기억을 억압하거나 무의식 저편으로 밀어 넣는다.¹³⁾

유아가 자라나면서 위니컷이 언급한 일차 모성물두(primary mater-

13) 이런 이유로 성인 대부분은 신경증(neurosis) 증세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기되는 불안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어기제들을 사용한다. 신경증의 종류로는 불안신경증, 히스테리, 강박 신경증, 공포증, 망상증 따위가 있다.

nal pre-occupation)시기를 넘어선다. 첫 대상이었던 어머니가 이제 이전같이 유아에게 몰두하지 않는다. 점차 유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위니컷에 따르면 이 기간에 유아는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을 만난다.¹⁴⁾ 중간대상은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줄이거나 달래기 위해 선택하는 대상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유아가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인형, 장난감, 담요, 포대기, 베개, 수건 등이 일반적이며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의 일부 혹은 노랫소리와 같은 추상적인 것도 그 대상이 된다. 이제 유아는 어머니의 부재의 문제를 중간대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어머니라는 대상과 주고받았던 평안, 신뢰 혹은 불안, 원망을 이제 중간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극복한다. 어머니가 중간대상으로 전치된 것이다. 물론 이것 역시 유아의 환상 속에서 일어난다. 유아는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중간대상을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중간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웃, 유치원, 학교 등과 접촉하면서 사회화되어간다.

위니컷의 정신분석학은 여기서 그 이론을 일단 마무리할 수 있지만 본 논문과 사회학은 그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연구 주제로 이동한다. 곧 사회라는 대상이 성인이 된 유아가 만나는 세 번째 대상이다. 어머니, 중간대상에 이어 사회가 세 번째 대상이다.¹⁵⁾ 이미 우리는 위에서 사회는 하나의 대상(object)이라는 뒤르켐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과 내용이 이후 성인이 되어 타인들과 관계 맺을 때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대상관계이론의 주장도 언급하였다. 이제 성

14)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도널드 위니컷,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의 1장을 참조하라.

15) 이 대상을 마지막 대상이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 전이든 후이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뒤에 ‘사회종교학과 ‘하나님종교학’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인은 어렸을 적 어머니 혹은 중간대상과 가졌던 관계 방식과 내용으로 사회라는 대상과 관계를 형성한다.¹⁶⁾ 사회라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은 신뢰, 평안, 안정 혹은 불안, 두려움, 우울, 불신, 공격성, 회복 등의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사회라는 대상에 의존하여 안정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분리 혹은 소외되거나 되었다고 생각하여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부모, 가정을 넘어 사회로 진입하면 사회적 욕구—인정, 물질, 명예, 학벌, 지위 등등—을 가지게 될 터인데, 문제는 사회는 ‘good enough society’가 아니므로 개인의 욕구는 종종 거부, 무시, 박해, 방치될 것이고 이에 개인은 불안, 분노, 좌절,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때로 사회는 욕구를 충족해주는 대신 규범이나 순복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개인들은 이런 사회를 향해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안이나 좌절은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것들이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 심적 부담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문명과 그 불만자들』에서 제기한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프로이트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안전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복 가능성을 내주었다”고 주장하였다.¹⁷⁾ 물론 이때 느끼는 안전감은 환상의 결과이다. 라캉은 이를 상상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취급한다.¹⁸⁾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사회에 예속된다. 마치 유아가 대상들에게 종속되듯이 사회에 의존하고 예속된다. 여기서 우리는 뒤르켐이 언급한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가 신과 신도의 관계와 같다는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신도는

16) 여기서 대상은 거대 사회 전체로서의 사회일 수도 있고, 미시사회학적 사회, 곧 의미 있는 타자들이 모여 있는 작은 규모의 사회일 수도 있다.

17) Sigmund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1), 62.

18) 라캉은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를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자.

‘신’으로부터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행복, 자유, 권리를 ‘신’에게 내주었다.¹⁹⁾ 그리하여 사회가 종교가 되었다.

IV.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사회 해체

사회가 종교가 된 결과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사회의 필연성, 견고성 그리고 우위성이다. 더구나 뒤르켐이나 쉴츠와 같은 후기 뒤르켐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회에 ‘성스러움’이라는 아우라(aura)까지 덧입혀진다. 이런 사회는 개인들에 의해 배척되거나 통제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회변혁 가능성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통합에 연구의 초점이 모아진다. 뒤르켐의 구조기능주의가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는 필연적이지도, 완벽하지도, 불변적이지도, 우위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자체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이 소위 후기구조주의자들이다. 이 중 대표적으로 ‘바르트, 라캉, 푸코, 데리다’이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연시 여겨지는 것, 익숙한 것,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것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개입하여 해체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평생 동안 나를 매혹해온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²⁰⁾ 이런 관심의 연장선에서 그는 사회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

19) 물론 무신론자인 프로이트와 뒤르켐의 신과 신도에 대한 개념이다.

20) 롤랑 바르트, *Le Grain de la voix* (Paris: Seuil, 1981), 15, 조너선 켈러, 이종인 역, 『바르트』(서울: 시공사, 1999), 22에서 재인용.

고 그 결과를 신화론에서 구체화하였다. 신화론을 쓰면서 그는 “현대 생활을 설명하면서 자연과 역사가 혼돈되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²¹⁾ 이는 오늘의 사회가 역사과정의 결과일 뿐인데 마치 자연인양 인식되거나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대의 삶이 이렇게 보이게 된 까닭은 바로 신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 신화를 해독하는 신화학자가 되어 신화와 신화제작자의 의도나 목표를 신화 소비자에게 드러내 주면서 사회에 대한 해체 혹은 탈신화화를 시도한다. 그는 한때 “신화를 분석하는 것은 지식인이 정치적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²²⁾

바르트에 따르면 신화는 2차 기호의 작용이다. 기호학자이기도 한 그는 기표(시니피앙)에 기의(시니피에)를 더하여 1차 기호가 되며, 이 1차 기호가 다시 기표가 되고 이 기표에 다시 새로운 기의가 부여 되서 2차 기호가 되는데, 바로 이 2차 기호가 신화라는 것이다.²³⁾ 예를 들어 『파리-마치』라는 잡지 표지에 실린 프랑스 국기에 경례하는 흑인 병사의 사진을 살펴보자.²⁴⁾ 1차 기호는 국기와 경례하는 병사라는 기표와 기의가 모여 국기에 경례하는 흑인 병사라는 기호이다. 그러나 이 기호를 다시 기표화 하여 여기에 새로운 기의, 곧 프랑스는 위대한 국가, 프랑스 제국주의의 성공, 제국주의 정책의 필요성 등과 같은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나오게 된 2차 기호는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정당화 하는 신화로 작용하게 된다. 바르트는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 혹은 인류 사회를 정당화하고 자연화하는 여러 신화들-예를 들어, 프랑스

21) 위의 글, 42.

22) 바르트, “Maîtres et esclaves”, *Lettre nouvelles* (March, 1953), 108, 켈러, 53에서 재인용.

23) 바르트는 이를 도표로 구성하여 보여주는데 이는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서울: 현대미학사, 1995), 26쪽에 제시되고 있다.

24) Ibid., 28.

포도주, 시트로앵 자동차, 인간의 위대한 가족 등—을 해독한다. 그는 대부분의 신화들을 부르주아 계급의 관점과 이익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신화는 반자연(anti-nature)적인 것을 의사자연(pseudo-nature)으로 전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²⁵⁾ 이것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현실 수용과 유지이다.

데리다 역시 후기 구조주의에 속한 인물로, 대부분의 전후기 구조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그 역시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학에 근거를 둔 이론을 펼쳤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가 창안한 해체(deconstruction) 이론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데리다 역시 익숙한 것을 새롭고 낯설게 만들기를 원했다. 이 해체를 통해 데리다는 개인이나 사회가 자신들에 대해 행하는 설명이나 주장이 신뢰할 만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내기를 좋아했다. 이러한 해체는 개인 혹은 사회의 담론이나 텍스트에 숨겨진 내적 모순들을 드러나게 하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때로 해체가 “부정적인 또는 심지어 허무주의적인 운동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데리다는 해체가 긍정적이며, 변형의 잠재력을 갖춘(potentially transformative) 독해 방식을 강조했다.”²⁶⁾ 실로 해체는 견고하고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것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낯설게 함으로써 변형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가 우선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성, 자연성, 정당성과 같은 이상(ideal/idea)에 대한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해체적 독해를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평가절하시킨다. 예를 들어, 순수한 선물, 순수한 애도, 자연적인 몸, 순수한 환대, 자연적인 모성, 정당한 법적 판결 등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정치

25) Ibid., 69.

26) 페넬로페 도이치, 변성찬 역, 『How to read 데리다』(서울: 흥진지식하우스, 2010), 10-11.

적, 문학적 상황에서 은밀하게 작동되고 있는 환상적인 이상들로 모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데리다는 이들을 자세히 독해함으로써 그것들의 모순과 기만을 밝혀낸다.²⁷⁾ 이러한 것들에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들이 실제로는 순수하거나 자연적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순수와 자연의 이름으로 제외시키거나 억압하고 이 제외와 억압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데리다가 이 해체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 타협, 대안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순수가 순수의 이름으로 비순수를 억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이 비자연을 억압할 때 그곳에 변혁 가능성은 부재한다. 자기기만 속에서 끊임없이 환상적 이상만 고양시키는 그곳에는 차별과 분리만 있을 뿐이다. 데리다적 독해를 통해 순수와 자연이 해체되고 평가절하되어 낮아진다면 대화와 타협이 모색될 수 있다. 물론 이 대화와 타협의 과정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한 차연(différance)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곧 언어나 텍스트의 의미들이 결코 완전하게 또는 최종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지 불확정적이고 유예되는 의미들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연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좀더 인내심 있고 조심성 있게 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 데리다가 원하는 지속적인 실천이 바로 이것이다.²⁸⁾

“나는 어떤 도그마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한 푸코는 바르트나 데리다와 동일하게 “우리 사고의 이론적 틀 속에 내재하는 모든 친숙한 요소와 개념에 도전”하였다.²⁹⁾ 그의 주 관심 대상은 권력, 지식, 담론이었다. 먼저 그는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그런데 푸코가 관심하는 권력은 국가의 절대 권력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일상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이다. 그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사회의

27)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 1, 7, 8, 9장을 참조하라.

28) 위의 글, 147.

29) 사라 밀스, 임경규 역,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서울: 엘피, 2008), 25, 29.

모든 관계 속에, 곧 인간과 인간이 접촉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스며들어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권력관계는 모세혈관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상담가와 내방자, 부모와 아이, 저자와 독자, 남자와 여자 등이 그 예들이다. 전자의 인물이 후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다. 곧 교사, 의사, 상담가, 부모, 기술자, 저자,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지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이 모여져 규범화된 언술의 집합체가 담론이다.³⁰⁾

이러한 담론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 지각이 담론에 의해 결정된다. 담론이 우리가 지각하는 현실을 결정한다. 우리가 현실을 경험, 이해, 사유하려면 담론과 그것의 사고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푸코는 이러한 담론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에피스테메(épistémé), 곧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유통되는 일단의 지식과 인식 체계”라는 개념을 발전시킨다.³¹⁾ 이런 의미에서 담론은 개인에게 외재하여 “일개 인간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만의 운동 에너지와 운동 법칙을 가지고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³²⁾ 예를 들어, 외모, 성인병, 공부, 흑인, 여성에 대한 담론 등이 그것이다. 물론 담론은 재언술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개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분류될 있는 권위를 가진 자, 푸코의 의미에서의 권력자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권력은 담론을 통해 행사되고 담론은 권력에 의해 지속되며 또 권력은 담론을 통해 유지된다.

푸코의 이러한 분석은 그의 저서 『성의 역사 1: 얇의 의지』를 통해

30) 위의 글, 110.

31) 위의 글, 65.

32) 위의 글, 65. 이 서술은 뒤르케임의 ‘대상으로서의 사회’라는 개념을 연상시킨다.

잘 설명된다. 여기서 그는 생체권력(bio-power)을 언급하는데, 이 권력은 근대국가들이 인구 및 출산율 조사, 유행병 연구, 성적 일탈 등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전문가, 지식, 담론들을 급격히 증가시켰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 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정상과 변태의 경계선이 정해졌고 개인에 대한 훈육과 감시와 통제가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이제 성은 사적 영역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계적, 교육적 대상과 주제가 되었다.³³⁾ 성을 이렇게 볼 때 “생체 권력은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동원한다…… 오히려 성과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권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권력의 매체이다.”³⁴⁾ 권력이 상식과 달리 성과 관련된 지식과 담론을 통하여 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정상이든 비정상이든—을 훈육, 감시함으로써 통제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와 같이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영역에서 권력, 지식, 담론의 작동 방식을 분석해냄으로써 현 질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였다.

라캉은 위에서 언급한 후기구조주의자들과는 다소 특이하게 정신분석학에 근거한 이론가이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선언과 함께 그는 매우 독특한 이론 세계를 갖고 있는 정신분석학자였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해 살펴볼 라캉의 주장은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혹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는 주장이다. 먼저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란 의미부터 살펴보자. 이것은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부터 기원된다.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어머니라는 대상을 통해 표출하고 충족 받는다. 그런데 유아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욕구(need) 이상으로 어머니에게 요구(demand)하게 된다. 라캉은 이것을 욕망(desire)이라고 한다. 이 욕망은 어머니가

33) 필립 스미스, 앞의 글, 215-216.

34) 위의 글, 216.

결코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이 욕망의 성취를 위해 어머니를 완전히 사로잡거나 소유하길 원한다. 어머니를 사로잡기 위해 유아는 어머니가 욕망하는 모든 것이 되고자 갈망하고, 이를 위해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한다. 유아가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어머니의 욕망을 구현하고 그 결과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결국 어머니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³⁵⁾ 어머니와의 이러한 대상관계는 이후 그 유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작동된다. 개인들은 타인에 향한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동일하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는 한 그는 타인의 욕망에 종속되고, 타인의 관점과 기대가 반영된 사회적 산물이 되고, 진정한 자신의 욕구가 아닌 타인 혹은 타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의 욕망을 욕망하는 변형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된다.³⁶⁾ 물론 그 결과는 사회가 원하는 것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명제는 일차적 대타자라 할 수 있는 어머니 외에 2차적 대타자인 상징계 혹은 언어와 관련된 욕망으로,³⁷⁾ 이것은 유아가 오이디푸스기(3세~5세경)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오이디푸스 이전 시기의 유아는 어머니에게만 몰두하면서 욕구와 충족을 해소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기에 이르면 아버지의 법을 만난다. 아버지의 법은 유아에게 금지를 명하고 처벌을 암시하면서 유아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집착을 끊도록 요구한다. 유아는 계속 어머니에게 집착하기를 원하나 그럴 경우 아버지로부터 상징적 거세를 받을 위협을 갖게 된다. 결국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끊고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이제 유아는 아버지의 법, 혹은 질서, 권위, 규범을

35) 스테판 밋첼, 앞의 글, 335-336. 이때 그 아이가 욕망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찾는 것이 바로 상상적 팔루스(phallus)이다.

36) 위의 글, 337.

37) 라캉에게 대타자는 단지 상징계나 언어만 의미하지 않는다. 주체에게 의미, 욕망, 위치를 부여해주는 것은 모두 대타자라 할 수 있다.

수용한다. 그러나 실상 이 아버지의 법은 사회의 법, 사회의 질서이다. 라캉에게 이러한 법과 질서의 세계는 상징계 또는 언어이다.³⁸⁾ 이제 유아는 아들 혹은 딸 혹은 자녀라는 상징적 기표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상징계 혹은 언어가 그를 아들, 딸, 혹은 자녀로 호명하는 것이고 유아는 그것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아들, 딸, 혹은 자녀로 인식하면서 상징계 안에 자리 잡는다.

상징계 안에서도 유아 혹은 개인은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이 욕망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와의 분리를 겪으면서 갖게 된 결여로부터 근거하는 욕망이다. 어머니와 환상 속에서(상상계) 가져왔던 욕망을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금지당한 유아는 욕망의 빈자리를 가지고 상징계에 진입하여 그 결여를 채울 수 있는 대상들을 찾는다. 이에 대해 상징계는 많은 욕망의 기표들을 가지고 있다. 즉 이 결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많은 대상을 가지고 있다. 돈, 아파트, 옷, 명예, 지위, 학위, 성, 권력 등등이다. 라캉은 이들을 환상대상 a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그 결여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 그 결여는 상징계의 어떤 것으로든 채워질 수 없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결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결여를 채우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한 그는 상징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 사회의 상징계의 욕망 기표들을 갖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그 기표를 얻는 방법, 곧 그 사회가 정한 방법과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구조주의자들의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을 자연화, 당연시,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자신의 존재를 유지, 영속시킨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또한 사회가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방법, 개인들이 사회에 종속되는 원인도 독해해낼 수

38)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 읽기』(서울: 은행나무, 2006), 65.

있다. 사회를 자연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혹은 개인이 사회에 종속되는 원인들을 분석해내는 것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기존의 방식으로 보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다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모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변혁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이론의 실천은 기존의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 그 가능성이 확대된다. 실제로 후기구조주의자들 대부분도 구체적인 사회개혁 이론이나 모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독특한 독해와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사회 운동을 펼쳤다. ‘다르게 보기’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V. 결론: 사회종교학과 하나님종교학

개인은 왜 자신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약하는 사회에 종속되는가? 이를 다시 정신분석학적으로 서술하면, 왜 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회에 종속시키는가? 본 연구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신과 신도의 관계로 설명한 뒤르켐의 이론을 시작으로 위의 물음들에 답하였다. 이러한 물음에는 기독교사회학적 연구 동기가 배경으로 놓여 있다. 곧 사회 종속이 아닌 하나님에게 예속되는 개인, 사회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오늘날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욕망하며 쫓는다. 라캉의 논리대로 라면 결코 세상의 기표(환상대상 a)들은 개인들을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 그런데도 추구를 멈추지 않고 한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이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숭배하고 종속하는 ‘사회종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보다 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사회종교’보다는 ‘하나님종교’, ‘사회승배’보다는 ‘하나님승배’, ‘사회종속’보다는 ‘하나님종속’이 필요하다. 물론 이 논문은 ‘하나님종교학’-이러한 용어가 가능하다면-을 소개하거나 정립하는 논문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문 분야에서 보다는 신앙 영역에서 실천될 목표일 수 있다. 종교사회학 혹은 기독교사회학 영역에서는 ‘사회종교’의 현상과 역할만 분석하고 해체해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변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사회가 현행대로 형성, 유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를 위한 개괄적 소개에 그친다. 따라서 보다 깊고 많은 양의 연구 활동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종교학’을 위한 종교사회학(기독교사회학)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이철, 『송혜문 전소 사건의 사회통합적 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신학사상』 144집, 2009.
- 최종렬 엮음,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서울: 이학사, 2007.
- Alexander, Jeffrey.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파주: 한울, 2007.
- Barthes, Roland. 정현 역, 『신화론』, 서울: 현대미학사, 1995.
- Culler, Jonathan. 이종인 역, 『바르트』, 서울: 시공사, 1999.
- Deutscher, Penelope. 변성찬 역, 『How to read 데리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 Durkheim, Emile. 노치준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 Homer, Sean.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서울: 은행나무, 2006.
- Klein, Melanie. 이재훈 역, 『멜라니 클라인』,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Mitchell, Stephen A. & Black, Margaret J. 이재훈 · 이해리 역, 『현대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이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Mills, Sara. 임경규 역,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서울: 엘피, 2008.
- Smith, Phillip.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문화이론』, 서울: 이학사, 2008.
- Winnicott, Donald W.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Berger, Peter L.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Anchor Press, 1967.
- Freud, Sigmun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1.
- Frisby, David & Sayer, Derek, *Society*. New York: Tavistock & Ellis Horwood, 1986.

논문투고일: 2011. 10. 03

심사개시일: 2011. 11. 18

게재확정일: 2011. 12. 17

• 국 문 초 록 •

종교사회학은 종교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때 종교는 제도종교 뿐만 아니라 유사종교도 그 연구 대상이 된다. 뒤르켐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에게 ‘신’과 같은 종교이다. 개인들은 사회에 종속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고, 사회에 의존한다. 마치 신을 숭배하듯이 사회를 숭배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사회종교’라 칭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뒤르켐의 이론을 시작으로 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후기구조주의 이론들을 활용한다. 뒤르켐으로부터는 사회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개인들이 사회에 의존하거나 쫓으려는 원인을, 후기구조주의로부터는 사회가 자신을 신적 존재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을 해체하는 방법론을 차용한다.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앙인이 사회 종속이 되는 원인과 경로를 밝히고 나아가 사회 종속에서 하나님께 예측으로, 사회 숭배에서 하나님 숭배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토대작업으로 무엇보다도 ‘사회종교’를 분석하고 해체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주제어: 사회, 신, 종교, 정신분석학, 후기구조주의, 사회변동
